

우리 쌀 가공식품 전북 지역 2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 시작

- 우리 쌀 간편식, 휴게소 간식 시장 공략
- 청년농업인 생산 제품, 신규 판로 개척 성과로 이어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 사업이 우리 쌀 가공식품의 신규 판로 개척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는 국립식량과학원 육성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국립식량과학원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북본부 휴게소장 협의회,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 등 관계 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참여 청년농업인을 선발한 후 농산물 생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후속으로 청년농업인이 우리 쌀을 주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전북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26개소에 입점시켰고,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 판매되는 ‘조선 부리또’는 우리 쌀로 만든 얇은 피안을 고기나 피자 맛 속으로 채운 다음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이색 음식이다. 우리 쌀의 새로운 소비처를 개척함과 동시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게소 간식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새로운 유통·소비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청년농업인 업체에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유통망과 연결하는 협업·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5200)
		담당자	지도관	김쌍수 (063-238-5230)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